



Eighth Army Public Affairs Office

Phone DSN (315) 755-8275 / Local 0503-355-8275



FOR IMMEDIATE RELEASE

Media Release: 20250515-01

MAY 15, 2025

미 8 군, 하와이 LANPAC 2025 참가... 인도-태평양 육군 수뇌부 및 주요 관계자들과 협력 강화

캠프 험프리스, 대한민국 — 미 8 군은 이번 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2025 년 인도-태평양 육군 심포지엄 및 전시회(LANPAC)에 참가해 “Fight Tonight” 임무와 한미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강조했다.

LANPAC 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육상 전력을 주제로 한 대표 포럼으로, 올해는 32 개국 대표단과 16 개국 육군 참모총장을 포함한 주요 군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공동 안보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 행사는 미육군협회(AUSA)가 주최하고 미육군 태평양사령부(USARPAC)가 후원한다.

미 8 군을 대표해 셴 크로켓(Sean Crockett) 준장(사령관 직무대행)이 참가해, 각국 육군 수뇌부와 함께 미 8 군의 굳건함, 효과적이고 준비된 전투 태세, 그리고 한국군과의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크로켓 준장은 “인도-태평양 전역의 전략적 육상 전력 네트워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LANPAC 은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미 8 군은 대한민국에서 통합 지휘체계 하에 작전하는 연합군으로서, 양국 간 굳건한 동맹의 상징이다. 이 통합은 전술 작전부터 전략 기획에 이르기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신뢰와 상호운용성이 우리의 집단 방위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미 8 군이 전장에 어떤 전투 능력을 제공하는지를 공유하고, 지역 안보 도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LANPAC 의 주제는 “육상 전력을 통한 우위 확보(Prevailing Through LandPower)”로, 복잡한 인도-태평양 지정학 환경 속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맹국·파트너국의 역할과 억제력 강화 방안이 핵심이다.

미 8 군, 하와이 LANPAC 2025 참가... 인도-태평양 육군 수뇌부 및 주요 관계자들과 협력 강화

미 2 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 사령관 찰스 롬바르도(Charles Lombardo) 소장도 함께 참석했다. 롬바르도 소장은 “한미연합사단은 한반도에서 미 8 군 억제 태세의 핵심 축”이라며,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한국군과 협력해 교훈을 공유하고 부대를 통합해 강력한 전투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억제 실패 시 신속한 전개·전투·승리를 위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지형과 핵심 인프라, 대한민국 국민 보호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연합사단은 단순한 육군 중심을 넘어 한미 공군, 해군, 특수작전부대와의 통합을 통해 전영역·연합 방어 태세를 구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크로켓 준장과 롬바르도 소장은 LANPAC 참가자들과 함께, 45 개 실사격 훈련장, 주한 미육군 순환배치 전력, 동맹·파트너국과의 통합적 훈련과 전력 혁신 노력을 통해 미 8 군이 어떻게 연합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공유한다. 미 8 군은 보다 치명적이고, 더 준비되어 있으며, 회복력과 생존성이 강화된 부대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영토 방위를 위한 핵심 기반이다.

LANPAC 2025 는 5 월 13 일부터 15 일까지 개최된다.

문의:

미 8 군 공보실

이메일: usarmy.humphreys.8-army.mbx.public-affairs-office@army.mil

-끝-